

편집후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유익한 「건설기술|쌍용」을 만듭니다.

현장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 새로 적용하는 기술,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운 노하우를 「건설기술|쌍용」에 풀어 놓으세요. 여러분의 귀한 지식과 경험을 정성껏 엮어 보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Trouble Shooting, 기술칼럼, 신기술·신공법, 현장리포트, Q&A 등에 직접 참여하고, 「건설기술|쌍용」에서 다룰만한 참신한 기획거리도 알려주세요. 보내주신 기술정보를 「건설기술|쌍용」에 소개하고,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쌍용인의 동반자 「건설기술|쌍용」은 언제나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원고접수처 「건설기술|쌍용」을 함께 만드는 편집·실무위원들

편집위원장	최장식 전무 (7064, choijangsik@ssyenc.com)
기술개발부	정대용 차장 (7706, danielyc@ssyenc.com) 전우태 대리 (7709, jeonwt@ssyenc.com)
기획부	최세영 팀장 (7117, chltpdud@ssyenc.com) 김지현 대리 (7113, judy@ssyenc.com)
토목기술부	이기환 차장 (7772, ikhjin@ssyenc.com) 김창수 대리 (7767, conshot@ssyenc.com)

「건설기술|쌍용」은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 1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발간되며, 발간일 2개월 전까지 의견을 주시면 편집에 반영됩니다.

발행인 김석준

발행일 2004. 12. 1

발행처 쌍용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3

TEL : 02-3433-7114 FAX : 02-3433-7739

www.ssyenc.com / www.ssict.co.kr

e-mail : danielyc@ssyenc.com

Jeonwt@ssyenc.com

편집디자인 디자인폭스 (TEL : 02-323-7540)

건설기술|쌍용

2004년 겨울호 통권 제 33호(비매품)

전남 완도군의 보길도

윤선도의 숨결이 살아있는 부.용.동.정.원.

1036년(인조 14)에 고산(孤山) 윤선도(1587~1671)가 보길도의 산세에 매료되어 세상을 등지고 머물렀던 곳. '어부사시사' 등 시가를 창작한 국학의 산실이기도 하다. 부용동 정원의 중심은 세연정이다. 진세의 티끌을 말끔히 씻어내는 세연정, 자연적인 시내를 돌돌목로 막아 만든 연못 세연지와 회수담, 그리고 두 연못 사이의 인공 섬에 정자 세연정을 세웠다. 옛 모습이 잘 보존된 연못 주변에는 늙은 소나무들이 기울어 있고, 차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수가 우거져 옛 정취를 자아낸다. 윤선도(尹善道)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거처할 집을 짓고 그에 딸린 정자와 연못 등을 만든 것이 이 정원이다. 1636년은 왕이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한 때로, 항복을 반대하던 윤선도는 벼슬을 버리고 은거를 결심하여 해남 연동(蓮洞)의 본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섬에 별서(別墅)를 짓고 거기에 정원을 꾸민 것이다.

정원은 크게 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처하는 살림집이 있는 낙서재(樂書齋) 주변과 휴식과 독서를 위해 건너편 산허리의 바위 위에 집을 마련한 동천석실(洞天石室) 주변, 그리고 동리 입구의 세연정(洗然亭) 주변이다. 낙서재는 서실(書室)을 갖춘 살림집으로 북향하고 있으며, 옆으로 낭음계(朗吟溪)라는 작은 시내가 흐르고, 낭음계의 양편에 곡수당(曲水堂)과 무민당(無憊堂)의 두 건물을 지었다. 이 두 건물의 곁에는 넓고 네모진 연못이 있다. 동천석실은 천하의 명산경승으로 신선이 살고 있는 곳을 '동천복지(洞天福地)'라고 한 데서 이름지어진 곳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 된다. 세연정 부근은 이 정원에서 가장 공들여 꾸민 곳으로, 해변에 바로 인접한 동구(洞口)에 인공으로 물길을 조정하면서 연못들을 만들고 정자와 대(臺)를 지어 경관을 즐기도록 하였다.

연못은 곡지(曲池)와 방지(方池)로 구성되는데 동구를 흐르는 내를 돌로 된 보로 막아 만든 곡지에는 큰 바위들을 점점이 노출시켰으며, 방지에는 한 쪽에 네모난 섬을 만들고 그 섬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았다. 방지의 동쪽 물가에는 돌로 된 네모진 단 두개를 나란히 꾸며 놓았는데, 이곳은 무회가 춤을 추고 약사가 풍악을 울리던 자리이다. 방지 남쪽에는 나지막한 동산이 있는데 세연정은 이 동산 위에 세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부용동정원은 윤선도가 죽자 곧 황폐하게 되었고, 3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초석이 흩어져 있을 뿐 과거의 건물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주변에 인가가 산재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인적이 드물어 정원의 유적은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어 연못이나 건물자리들이 완연하다. 이 정원은 건립 연대가 확실하고 유적이 온전히 남아 있는 데다 조선시대의 정원으로서의 드물게 보는 큰 규모의 별서정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

· 글· 사진 | 전우 태 대리



녹우당



동천석실



세연정



세연지